

“임대아파트 태양광 설치 제안”

박형배 시의원, 전주시의회 본회의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차원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영구임대 아파트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박형배 시의원(효자3·4동)은 26일 제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속에 친환경 에너지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따르면 옥상 태양광 설치 사업의 착안 모델은 작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의 옥상 태양광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 공동전기로 절감을 위해 아파트 옥상 등 공용공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은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 지원금 및 정부 태양광 대여사업 연계 등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실제 대여업체가 발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면서 7년 동안 전기료 절감액에 대한 대여료 납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옥상 공동주택형 태양광설치 사업은 관련 태양광 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 및 여러 매칭 사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 투자 지원을 통한 업체와의 유지보수·관리 협약, 한전 판매 등의 별도 관리가 이뤄질



수도 있어 태양광 평균 수명인 25년간 지속적인 유지 관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를 전기 사용료(연간 1억4천만원)를 지원하고 평화주공 1단지와 4단지에 설치할 경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입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사업 설명을 통한 담당부서와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좋은 취지에서 시장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도가 이제 단순 요금지원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형 에너지 자립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선 당장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진출한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이번엔 중국 남부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섰다. 사진은 중국 사면 백품해 수출입유한공사와 계약체결 모습

하림 삼계탕, 중국 남부 진출

‘사면 백품해’와 손잡고 중국 복건성·광둥성 집중 공략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지난 6월 중국 최대 유통그룹인 쉐닝과 삼계탕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진출한 닭고기 전문기업(주)하림이 이번엔 중국 남부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섰다”며 “또한 “중국의 사면 백품해 수출입유한공사와 삼계탕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면 백품해는 중국 복건성에 위치한 수입유통 전문회사이며, 하림은 이번 수출 계약을 계기로 복건성과 광둥성을 비롯한 중국 남부 도시에서 삼계탕의 지면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면 백품해의 우진강 대표는 “하림의 공장과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보고 위생적인 생산시설과 품질 관리에 만족”해 하며 “한국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중국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하림과 중국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사면 백품해는 11월에 개최되는 차먼 국제 식품 무역 박람회를 시작으로 대형 유통매장을 통해 하림 삼계탕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

이다.

하림 육가공 박준호 본부장은 “중국 남부 지역에는 스프와 탕류를 선호하는 음식문화가 있어 삼계탕의 지면 확대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판단했다”며 “즉석식품과 수입식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삼계탕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은 11월 중순에 첫 주문물량인 6천 봉을 수출하고, 연말까지 6천 봉을 추가로 수출할 예정이며, 내년엔 1만 봉까지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림은 10월 말부터 한 달간 대만에서 대형 유통업체들과 연계해 하림 삼계탕 시식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원동백화점, 시티슈퍼, 코스트코(점포별 행사기간 상이) 등에서 하림 전통 삼계탕과 하림 전복 삼계탕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면접용 셀프 그루밍

“이렇게 해보자”

면접의 계절이 다가왔다. 하반기 취업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인상으로 운명을 바꿀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면접 진행에서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첫 인상이 평가받는 만큼 단정하고 신뢰감 가는 첫인상을 만들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평소 꾸미기에는 거리가 멀던 남성의 경우 면접을 앞두고 더욱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28일 아모레퍼시픽 오딧세이에 따르면 까칠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은 에너지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첫인상을 위해 밝고 정돈된 피부, 또렷한 눈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은 피부 기초관리다. 수분, 피지, 탄력 3가지 밸런스를 맞춰줘야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이 면접 그루밍의 첫걸음이다. 면접 날까지 잡혔다면 더 늦기 전에 스킨케어 제품으로 피부 관리를 시작하자. 바쁜 취준생이라면 피지관리, 미백, 주름개선 등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기능성 올인원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모레퍼시픽 오딧세이의 ‘블루에너지 파워 올인원 에센스’ 등이 시중에 나와있다.

피지 과잉으로 번들거리는 피부는 자칫 지저분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면접 전 날엔 피지 조절 기능이 있는 팩을 사용해 피부를 정돈하면 좋다. /뉴시스

농축산물 유통채널개발 위한 축산물 생산현장 견학

세계로마트 양연주회장과 모닝마트, 옥련시장 마트 대표 등이 장수군 방문

지난 25일 장수군 축산과 주관으로 세계로마트 양연주회장과 모닝마트, 옥련시장 마트 대표 등이 장수군을 방문했다.

장수군 축산과와 장수군립조합장수한우지방공사의 안내를 받은 방문단의 유통업체CEO들은 S-APC와 장수한우지방공사 유전자뱅크 신립조합 오미지농장 등 장수군 농

축산물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장수군 관계자는 유통업체 대표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정지역 장수군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축산물의 수도권 유통량 확대에 기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방문단을 대표하여 세계로마트 양연주회장은 장수군 특관코너 운영 등을 적극 검

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세계로마트는 수도권지역에 10여 개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 마트협회 회장이기도 한 양연주회장은 향후 더 많은 회원사 대표들을 초대하여 장수군을 방문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방문일정을 마쳤다. /장수=고판호 기자

모피도가성비 바람... 페이크 퍼 인기

지켓, 퍼 웨더 컬렉션 출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로망 모피에도 가성비 바람이 불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페이크 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페이크 퍼는 진짜 모피에 비해 가격이 낮은 뿐 아니라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보온성까지 좋아져 리얼 퍼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28일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여성복 브랜드 지켓은 이달 28일 ‘퍼 웨더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켓의 퍼

웨더 컬렉션은 최근 떠오르는 가치 소비를 겨냥, 페이크 퍼와 리얼 퍼의 장점을 결합한 합리적 가격의 제품이 다.

지켓은 우수한 품질의 페이크 퍼를 사용해 촉감과 보온성을 리얼 퍼 못지 않게 높였다. 대신 가격을 낮췄고 리얼 퍼를 포인트 디자인으로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전체를 퍼 소재로 만든 코트, 블라우스, 조끼, 모자 달린 점퍼, 스웨터 등의 류와 클러치, 포퓰 등 액세서리로 출시된다. 의류는 30~80만원대, 액세서리는 10~20만원대다.

김주원 신세계인터내셔널 여성복 마



케팅 담당 과정은 “최근 페이크 퍼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촉감과 보온성에서 리얼 퍼 못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며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페이크 퍼는 모피를 입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햄버거·피자 등 알레르기 표기 의무화

앞으로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표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점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알레르

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조리·판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우유, 땅콩, 밀, 계, 새우, 조개류 등을 함유한 원재료 18종이다.

이들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기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뉴시스

배추값은 안정세 무는 가격 급등

폭염에 폭등했던 배추값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출하량이 늘면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반면 무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장미구니 물가 상승을 부채질해 온 채소류 가격이 산지 출하여건 호전으로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무는 가을무 출하 지연으로 반입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채소인 배추는 작황이 양호한 준고랭지 2기작 출하가 원활해지면서 9월 대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급조절 매뉴얼상 안정단계에 진입했다. aT가 지난 24일 서울을 중심으로 조사한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1910원으로 전월 6158원보다 가격이 69% 내렸다. /뉴시스

NH 농협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NH NongHyup

여러분의 결연 늘 **농협**이 함께합니다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장수군지부 지부장 이승진 장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용준 장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곽점용